불법 삼림 벌채에 스님들 '뿔났다'

캄보디아 승려 단체, 숲 살리기 환경 운동 '앞장'

박정현 객원기자

캄보디아 정부의 무분별한 삼림 벌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스님들이 삼림 보호를 위해 직접 뛰어들었다.

현재 MCF(Monks Community Forest) 및 사회정의를위한독립승가네트워크(Independent Monk Network for Social Justice, IMNSJ) 소속 스님들이 삼림 벌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8월 31일(현지시간) 부디스트도어가 보도했다.

삼림 벌채는 캄보디아에서 주된 환경적 위협 요소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에는 캄보디아 국가 면적의 73%가 숲으로 덮여있었으나, 2010년에는 57%까지 떨어졌다.

캄보디아 북부 오다르메안체이주(州)에 위치한 삼롱 사원 주지인 번(Bun) 스님은 "우리는 숲을 잃었고, 이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줄었다. 이는 곧 질병 증가와 이산화탄소의 대기 방출로 이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는 이 땅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다"며 "승려들은 숲 전체의 바깥을 따라 도랑을 파서 경계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 스님은 시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출가했다. 그는 태국에서 5년간 수행하는 동안 불교 교리와 환경 인식을 통합 연구하며 환경 보호 운동에 임하는 단체에 머물렀다. 이후 2002년 캄보디아 당국의 숲 보호 정책에 따라 귀국, MCF를 설립하고 오다르메안체이주의 숲 1만8261헥타르의 산림지를 보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번 스님은 2010년 유엔개발계획에서 적도상(Equator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숲 면적 20년 간 16% 감소

무분별 삼림 벌채 주요 원인

활동가 스님들, 숲 외곽 따라

경계선 만들어 '지킴이' 운동

반대파 협박에도 의지 '굳건'

번 스님은 "이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숲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했다"며 "태국은 이미 숲 면적을 많이 잃어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남은 숲을 다음 세대를 위해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승려단체들이 숲 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가운데 불교계 안팎에서 스님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또 다른 단체인 IMNSJ 설립자인 번텐 스님은 "숲 보호를 위해 나서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매우 논리적인 일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번텐 스님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상록림 중 하나인 프레이 랑(Prey Lang)이 벌채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프레이 랑은 3,600㎢ 규모의 숲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20개 식물종과 27개 동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농장 건축과 불법 벌목으로 인해 숲의 상당 규모가 훼손됐다.

프레이 랑 인근에 살고 있는 산 레스(63) 씨는 "정부는 국가 발전을 위해 벌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발전'이라면 왜 우리에게 슬픔을 야기하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스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랜 시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의 숲을 구하기 위해 나서주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님들의 환경 보호 운동은 위협받고 있다. 불교계 안팎에서 스님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것. 지난해에는 활동가 스님들의 사원이 경찰에 의해 수색 당했으며, 심지어 캄보디아 승가 교단의 원로 스님조차도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나섰다.

비단 스님들뿐 아니라 환경활동가·언론 등이 불법 벌목에 대해 고발한 후 협박을 받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정부 불교통제 확대… '국기게양' 실시

전국종교회의서 국기게양 채택 "국가의식 고취"

천년고찰들 경내서 국기게양

온라인상에서 비판 목소리 커



소림사에서 열린 국기게양식의 모습. 사진출처=시사통신사

중국정부가 종교계를 통제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통제가 가시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더 에폭 타임즈'는 8월 30일 중국의 천년고찰들에서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국기게양식은 중국에서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되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중국의 천년고찰인 허난성(河南省) 샤오린스(少林寺)와 윈난성(雲南省) 위엔통스(圓通寺)에서 잇달아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 국기게양은 지난 7월말 베이징서 열린 전국종교관련회의에서 채택된 '종교활동 거점에 국기를 반드시 게양해야 한다'는 제안에 기인한다.

27일 샤오린스에서 실시된 국기게양식에는 허난성 공산당 상무위원, 방장 스융신(釋永信) 스님과 샤오린스 대중스님 전원이 참석했다. 융신 방장은 게양식에 붙여 "애국은 불교에서 일관되게 지켜온 역사적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융신 방장은 중국정부가 공인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튿날 오전 7시 20분엔 윈난성 쿤밍(昆明)에 소재한 위엔통스에서도 국기게양식이 실시됐다. 위엔통스 방장 쉰파(淳法) 스님은 게양식에 대한 인터뷰서 "애국은 불교의 전통이다. 불제자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새로운 시대의 승려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중국의 인권변호사 시에옌이(謝燕益) 씨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못 박으며 "사상에 대한 강조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정권의 운영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주로 해왔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상에는 "중국불교는 이미 공산당에 굴복했다" "경내에 공산당지국을 세울 것인가"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세속에서 벗어난 승려들에게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원래 불교정신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었다. 실제 4세기경 중국의 고승 여산혜원(廬山慧遠)선사는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 출가자와 국가 간의 정교분리를 일찍이 강조한 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슬럼가 변화시킨 동네 불상

캘리포니아 우범지역서 범죄율 82% 이상 급감

쓰레기 불법투기 막고자

지역민 화단에 불상 모셔

미국의 한 슬럼가에 부처님 가피가 퍼지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토카나'는 불상 한 구가 미국 슬럼가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시의 11번가와 19번로 사이 지역은 예로부터 우범지대로 손꼽히는 곳이다. 시에서도 이렇다 할 개발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마약밀매와 불법매춘 등이 성행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약 5년 전, 이곳에 거주하는 댄 스티븐슨 씨가 집 맞은편 골목에 높이 60㎝ 정도의 불상을 모시면서 변화가 생겼다. 스티븐슨 씨는 "집 앞 골목 화단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꽃을 밟고 다녀 골치였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불상을 가져다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상은 지역 잡화점에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놀랍게도 변화는 다음날부터 일어났다. 먼저 불상이 모셔진 화단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사라졌다. 불상 옆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다시 수거해갔다. 불법 그래피티 낙서도 점점 줄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의 베트남 이주민들이 불상을 참배하러 왔다. 처음엔 작은 과일을 올리고 향을 피우는 정도였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또한 스티븐슨 씨의 이웃인 베트남 이주민 비나 보 씨와 꿉 보 씨는 이를 보고 불상을 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티븐슨 씨가 허락하자 베트남 이주민 공동체는 본격적으로 불상을 모신 화단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돌로 좌대를 만들고 불상을 보호하는 지붕을 씌웠다.



오클랜드 슬럼가의 명소가 된 불당. 사진출처=오디티 센트럴

규모는 점점 커져서 작은 불당이 됐다. 새하얀 돌로 만들어진 불상은 이제 개금불사까지 마쳤으며, 불단에는 다른 불상들도 함께 모셨다. 불당엔 '팝 유엔 뚜(Phap Duyen Tu, 法緣寺)'라는 현판도 걸렸다. 현지에서는 '오클랜드의 부처님(The Buddha of Oakland)'라는 이름의 명소로 사랑 받고 있다.

불당이 갖춰지고 사람들이 참배함에 따라 지역의 범죄율도 급감했다. 오클랜드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강력범죄는 14건에서 3건, 폭행사건은 5건에서 0건, 절도는 8건에서 4건, 약물중독과 불법매춘은 각각 3건에서 0건으로 여러 범죄율이 약 82% 이하로 내려갔다.

스티븐슨 씨는 "이제 저 부처님은 나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부처님이 됐다. 지역의 상징으로 불교도가 아닌 주민들도 불당 앞으로 산책을 나오거나 약속을 잡는다"며 자신이 모신 불상이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기뻐했다. 그는 이어 "처음엔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 각 교파간의 문제가 있기에 부처님으로 선택했다. 부처님이 더 자연스럽고 중립적이지 않느냐"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동 15명 성추행해 구속된 인도 승려

국제불교위 "가증스러운 범죄" 강력 비난

인도에서 한 승려가 어린이들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더트리뷴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보드 가야에서 불교학교 겸 명상센터를 운영한 반드 상프리야 수조이(Bhante Sanghpriya Sujoy) 스님이 아동 성추행 혐의로 14일간 구금됐다고 9월 1일(현지시간) 현지 경찰 아닐 쿠마(Anil Kumar)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아쌈 출신 소년 15명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수조이 스님은 보드 가야의 마스티풀(Mastipur)이란 마을에서 불교학교 겸 명상센터 프라산나 죠티(Prasanna Jyoti)를 운영했다. 이곳에서 피해자 15명의 아이들에게 불교를 가르쳤다.

경찰은 해당 아동들이 스님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당국은 특별조사팀(SIT)를 꾸리고 특별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라지브 미슈라 상원 의원이 밝혔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국제 불교계의 분노도 확산되고 있다. 국제불교위원회(International Buddhist Council, IBC)는 보드가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종교 교육이란 미명하에 어린이에게 가한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IBC 사무총장은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SIT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수도원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승려들에 대해선 IBC 회원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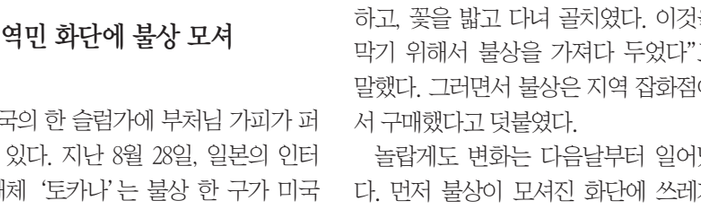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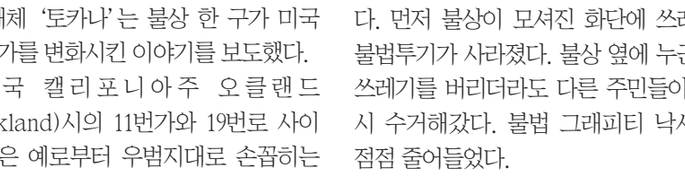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위패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아토피의 자가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철골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